

## 미래를 위한 투자, 투명한 회계 경영



지난 1998년 벤처확인제가 도입된 뒤 벤처기업 수는 2001년 7월 처음 1만개를 돌파한 이후 2002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이번 2월에 1만개를 재 돌파했다. 최근 벤처기업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은 IT 등 신산업분야의 벤처기업 간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군이 새로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벤처기업활성화 대책'과 '벤처활성화 보완대책' 등으로 창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상승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겪고 다시 일어나는 벤처업계는 더 튼튼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투명한 회계 경영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침체되어온 벤처기업의 분위기가 회복되고 있는 요즘, 벤처기업의 간판 구실을 해 오던 몇몇 기업들의 경영진과 주주들을 중심으로 한 분식회계, 주가 조작, 부당 금전 거래 등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되어 힘들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벤처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회계법인과 감사인까지 연루되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벤처업계 전체의 근간이 병들어 가고 있다.

코스닥 상장 법인 동진에코텍은 작업 진행률을 조작하고 부실 자산의 허위 계상 등으로 분식회계를 하였고 180억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가 발생한 우리기술의 경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양도성 예금과 투자일임자산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플래닛82는 관계회사인 피앤씨미디어에 거액을 대여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처럼 잘 나가던 벤처기업들에서 발생하는 분식회계는 갑자기 커버린 몸집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벤처의 특성상 성공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잠재력과는 별개인 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윤리의식은 외형상의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던 소규모의 조직이 갑자기 커지면서 이에 따른 권한이나 책임이 충분히 분산되지 못해 결국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벤처산업은 장기적인 하향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 체계적 경영시스템, 관리시스템의 구축

우선, 벤처기업이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하게 되면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대부분 벤처기업은 기술력을 갖춘 기술형 CEO에서 시작하게 되므로 다음 단계가 되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CEO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거나 제대로 된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윤리 의식의 향상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하지만, 영세한 벤처기업이 직접 자사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부담스런 비용이 예상되므로 정부와 벤처기업협회, 회계법인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이 각 사에 맞는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상 비용 면이나 인력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컨설팅업체(회계법인, 증권회사 IB팀 등)가 범용으로 활용 가능한 내부통제제도를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저렴하게 재무컨설팅과 시스템을 각 벤처기업에 공급하면서 비용 일부를 정부나 협회에서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추가로 해당 기관은 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우회상장을 할 경우 재무적인 판단근거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 구축 및 운영도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추가하여, 벤처기업 스스로 투명한 회계공시 및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 투명하고 전문적인 회계 경영

현행 외부회계감사 및 증권거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산 70억원 이상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법인은 반드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 외의 기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아직 영세한 많은 벤처기업들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기업 현금 흐름의 투명성이나 재무건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벤처기업의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벤처기업이 거액의 비용을 들여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차선책으로 외부기관의 간단한 경영진단이나 내부의 인력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공개를 한 이후에는 기업의 주인은 CEO가 아니라 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즉, 투명하게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CEO가 인지해야 한다.

벤처기업에서 윤리 경영이 더욱 중요한 것은 디지털 경제시대로 인하여 향후에도 벤처기업의 형태가 질적·양적으로 급격히 성장을 할 것이고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의 성공은 결국 투명한 경영과 현명한 판단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벤처산업의 모든 구성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